

Online Series

2015. 9. 11. | CO 15-24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

박주화(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북한의 DMZ 내 목함지뢰 도발로 시작된 남북한의 긴장은 8·25 남북 합의를 통해 막을 내렸다. 위기, 긴장고조, 대화,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 중 하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이 신경증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례적으로 외신기자와 주재원들에게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에 미치는 파괴력을 확인한 점은 이번 합의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 중 하나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정권의 취약점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어놓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왜 저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적인 설명은 북한 내 최고 존엄인 김정은에 대한 비판 그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성역인 김정은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비판이 북한군과 북한 주민에게 노출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정치적 분석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군과 주민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북한 최고위층의 정권 정당성을 위협하는 수단으로서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북한 전방

군인들의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는 점, 북한 전방 부대의 식량사정이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대한 실상이나 남한의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에 대한 정보가 쉽게 북한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일으키게 하는 위력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설명 또는 분석들이 공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군인과 주민들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남한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첫째, 철저한 세뇌식 사상교육의 결과로 남한 정권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으로 믿어온 북한 군인,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만일 북한 군인과 북한 주민들이 평소 사상교육을 받은 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거짓된 출처로 인식한다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둘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접한 북한 군인과 북한 주민들의 태도와 행동이 어떠한 심리적 변화 과정을 통해 변화되는가? 태도와 행동의 변화는 심리적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심리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본 글은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두 의문에 대한 가능한 답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다니엘 길버트(Daniel Gilbert)가 연구한 출처경계실패(Source Monitoring Failure) 현상을 통해 가능한 해답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의문인 태도와 행동변화의 심리적 과정에 대해서는 고전적 조건형성(Classical Conditioning), 그리고 인지 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추가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정서적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출처경계의 실패(Source Monitoring Failure)

데카르트(Descartes)¹⁾는 사람들이 잘못된 출처에서 나오는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고

1) Rene Descartes, Valentine Rodger Miller and Reese P. Miller, *Principles of Philosophy*, vol. 24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1984)

주장하였다. 인간에 대한 데카르트의 통찰이 맞다면, 북한 군인에 대한 대북 확산기 방송은 효과가 없다. 북한 군인들은 거짓말을 일삼는 남한방송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스피노자(Spinoza)²⁾는 사람들은 일단 모든 정보를 참으로 받아들인 후 거짓을 선별하는데 이 과정에 오류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스피노자의 주장이 맞다면, 대북 방송은 북한 군인들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다. 북한 군인들이 설사 남한 방송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믿어도 그 내용을 자신의 생각에서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명한 사회문화심리학자 다니엘 길버트³⁾는 두 사람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의 내용을 대략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철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A 집단은 “철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문장을 읽었다. B 집단은 “철수는 착한 사람이다. 철수는 도박중독이다. 그런데 철수가 도박중독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문장을 읽었다. 마지막으로 C 집단은 “철수는 착한 사람이다. 철수는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그런데 철수가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문장을 읽었다. 세 집단은 각 문장을 읽은 후 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였다.

만일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세 집단 모두 “철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문장만 읽은 셈이다. 따라서 세 집단의 철수에 대한 평가는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거짓말을 읽은 C 집단의 평가가 가장 후했으며, 부정적인 거짓말을 읽은 B 집단의 평가가 가장 박하였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은 듣거나 읽은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더라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대북 확산기 방송으로 돌아가 보자. 대부분의 북한군과 북한 주민에게 거짓을 일삼는 남한 방송에서 말하는 북한의 실상, 그리고 남한 사회에 대한 내용은 거짓이다. 다니엘 길버트의 연구는 비록 대북방송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믿을지라도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생각,

2) Baruch de Spinoza, ed. Seymour Feldman, tr. Samuel Shirley, *The Ethics and Selected Letters* (Indianapolis: Hackett, 1982)

3) Daniel T. Gilbert, Douglas S. Krull and Patrick S. Malone, “Unbelieving the Unbelievable: Some Problems in the Rejection of False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no. 4 (1990), p. 60; Daniel T. Gilbert, Romin W. Tafarodi and Patrick S. Malone, “You Can't not Believe Everything You Rea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5, no. 2 (1993), p. 221.

남한 체제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고전적 조건형성(Classical Conditioning)

대북 확산기 방송이 북한 군인과 북한 주민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파블로프(Pavlov)의 개로 잘 알려진 고전적 조건형성을 들 수 있다. 연예인, 동물, 아기 등과 상품을 함께 제시하여 연예인, 동물, 아기를 통해 유도된 호감 반응을 상품으로 연합시키는 광고는 고전적 조건형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⁴⁾

대북 확산기 방송은 신세대 군인들이 좋아할만한 음악을 포함하고 있다. 음악은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일으킨다. 캐나다의 신경심리학자 로버트 자토르(Robert Zatorre)가 이끄는 연구팀은 즐거운 음악은 즐거움, 쾌락, 중독과 관련이 있는 도파민(Dopamine)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⁵⁾. 음악이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조절한다는 것은 음악의 효과는 자동적이며 거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아이유, 빅뱅, 소녀시대의 음악을 듣는 북한 병사들의 뇌에 도파민의 분비가 늘어날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한 군인들은 즐거움을 느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음악이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정서는 자동적으로 대북 확산기 방송에 대한 긍정적 반응, 더 나아가 남한 사회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일반화될 것이다.

같은 원리로 남한 사회에 대한 신뢰의 형성도 기대할 수 있다. 대북방송의 날씨예보가 맞아 떨어지는 것을 북한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날씨예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통해 남한의 과학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놀라움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날씨예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경험은 대북방송의 신뢰성을 경험하게 된다. 비가 온다고 예보한다면 비가 올 것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의 경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신뢰의 전염이 발생하게 된다. 즉 날씨예보뿐만 아니라 다른

4) Jan De Houwer, Sarah Thomas and Frank Baeyens, "Association Learning of Likes and Dislikes: A Review of 25 Years of Research on Human Evaluative Condition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7, no. 6, (2001), p. 853.

5) Valorie N. Salimpoor, Mitchel Benovoy, Kevin Larcher, Alain Dagher and Robert J. Zatorre, "Anatomically Distinct Dopamine Release during Anticipation and Experience of Peak Emotion to Music," *Nature Neuroscience*, vol. 14, no. 2 (2011), pp. 257~262.

정보에 대한 신뢰, 나아가 남한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로 확장될 수 있다.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평생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가슴에 품고 있던 북한 병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우천 예보를 듣고 빨래를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 타도의 대상인 남한의 음악을 나지막이 따라 부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시켜서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북한 병사는 더욱 당혹스러워할 것이다.

위 두 병사는 태도와 행동의 부조화 상황에 놓이게 된다.⁶⁾ 남한 사회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남한 사회에 대한 친화적 행동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불일치를 싫어한다. 애매함을 혐오한다. 인간은 어떻게든 불일치를 해결함으로써 일관성을 가지려 한다.

심리학의 연구들은 이러한 부조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태도를 변화시켜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제안한다. “나는 남한 정부를 싫어한다고 생각 했는데 실제로 나의 행동을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 남한 정부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구나”와 같은 방식으로 부조화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즉 남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짐으로써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러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유도하여 북한 군인과 주민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북한 사회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동기와 정서(Motivation & Emotion)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위계이론(Hierarchy of Needs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만족되지 않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을 한다. 그 중 가장 원초적인 동기는 배고픔과 같은 생리적 욕구이다. 북한 군인과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고 있지 않다는

6) Leon Festinger,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vol. 2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러한 생리적 결핍을 더욱 현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한편으로는 생리적 욕구를 절도나 귀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순응할 수도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을 겪고 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불만족스럽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이 모든 사람이 배고픈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 한다면 ‘사회 비교(Social Comparison)’⁷⁾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모든 북한 사람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믿음이 깨지게 된다면 현재 충족되지 못한 생리적 결핍이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그 자체로 북한 주민에게 강력한 정서적 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론적으로 휴전선 이북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개성 주민들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들을 수 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서울에서 매일 북한의 대남 선전 방송이 들린다면 서울시민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두려움을 느낄 것이며, 이를 막지 못하는 남한 정부에 대해 분노를 느낄 것이다.

사회인지심리학자 제니퍼 레너(Jennifer Lerner)에 따르면 정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암묵적으로 제시한다.⁸⁾ 두려움이라는 정서는 당면한 문제를 평화적·유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즉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두려움을 느낀 북한 주민은 남한에 대한 전투의지가 약화될 것이며 평화로운 수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분노라는 정서는 폭력적·적대적 수단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을 유도한다. 북한 정권에 적대적 행동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⁹⁾

7) Arie W. Kruglanski and Ofra Mayseless, “Classic and Current Social Comparison Research: Expanding the Perspective,”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8, no. 2 (1990), pp. 195~209.

8) Jennifer S. Lerner and Dacher Keltner, “Fear, Anger, and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1, no. 1 (2001), pp. 146~159; Jennifer S. Lerner, Deborah A. Small and George Loewenstein, “Heart Strings and Purse Strings Carryover Effects of Emotions on Economic Decisions,” *Psychological Science*, vol. 15, no. 5 (2004), pp. 337~341.

9) 9·11 사태에 대해 분노 또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슬람 국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었다. Jennifer S. Lerner, Roxana M. Gonzalez, Deborah A. Small and Baruch Fischhoff, “Effects of Fear and Anger on Perceived Risks of Terrorism a National Field

대북 확성기 방송의 과제와 전망

지금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군인과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북한 군인과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을 허위로 판단할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심리학의 답변은 비록 북한 군인과 북한 주민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내용을 거짓으로 생각할지라도 그 내용은 심리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합리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질문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심리적 태도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본 글에서는 긍정적, 생리적 반응과 대북 확성기 방송의 반복적 제시, 즉 고전적 조건형성을 통한 태도 변화, 그리고 행동과 태도의 불일치에 근거한 인지 부조화에 따른 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서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정서는 당면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암묵적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특히 두려움은 전투의지를 약화시키고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암묵적 태도를 형성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심리변화 과정의 공통점은 심리변화가 무의식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저항할 수 없는, 눈치 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 점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효과일 것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러한 효과들은 비가 올지 말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노래 한 소절을 따라 부르는 행동 변화와 같이 사소한 일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다. 즉 북한 정권의 모순과 비합리성에 대한 선명한 정치적 비판 보다는 쉽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사소하더라도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 긍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노래보다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후크송¹⁰⁾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부작용 역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Experiment,” *Psychological Science*, vol. 14, no. 2 (2003), pp. 144~150.

10) 한 노래에 같은 가사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만든 노래(국립국어원)

접한 북한 주민이 두려움이 아닌 분노를 경험한다면 오히려 대남 적개심은 증가할 수도 있다. 사회인지심리자인 레너는 두려움은 상황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생기는 감정인 반면 분노는 상황에 대한 원인이 뚜렷할 때 발생한다고 제안한다. 즉 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가 대북 확성기 방송 때문이라고 인식한다면 남한에 대해 두려움이 아닌 분노, 그리고 분노정서가 제안하는 폭력적 해결책을 선호할 수도 있다.

덧붙여 대북 확성기 방송이 치명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거의 모든 언론과 분석들은 효과적 비대칭 전략 수단으로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용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지심리학이 밝힌 의사결정 과정의 대표적 오류로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 주는 증거들에만 주의를 준다는 것이다. 나의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마저도 준비하는 것이 위기관리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일을 위해 안보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기 때문이다. ©KINU 2015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